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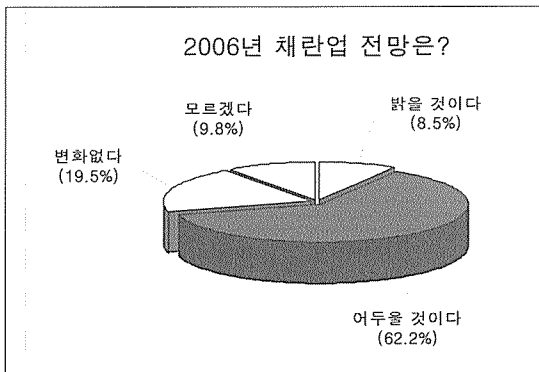
계란 유통구조 개선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계란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1. 2006년 채란업 전망은?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장기간의 고난가가 형성된 바 있다. 최근들면서 난가가 하락하여 농가 수취가격이 생산비 선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2006년도의 채란업 전망에 대해 양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채란인들은 62.2%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였



지난 10월 6~7일 양일간에 걸쳐 포천소재 반월아트홀과 산정호수에서 제10회 전국 채란인대회가 개최되었다. 본고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채란양계인들을 대상으로 채란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내용이다.

본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88명으로 이중 90.9%(80명)가 채란인들이고 나머지는 중추, 종계인 및 유통관련인들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채란인들의 사육규모를 보면 평균 4만7천수로 지난해 채란인 대회(11월) 때 3만9천수 보다 규모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 편집자주 -

으며, 밝을 것이라는 답변은 8.5%에 불과했다. 그 밖에 변화없다라는 답변은 19.5%, 모르겠다는 답변도 9.8%로 각각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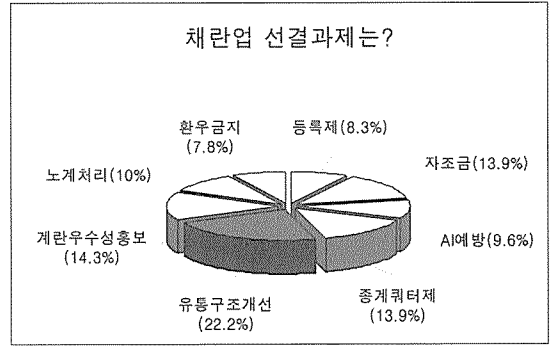
이는 지난해 채란인 대회시 같은 질문에 대해 33%가 어두울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양계업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농장 규모 확대 계획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농장규모를 확대할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 74.1%가 현상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확대할 것이다(17.3%)라는 답변이 축소할 것이다(8.6%)라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시 경기가 어두운 만큼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농가들은 그 동안의 호경기에 비축한 여력으로 시설 개선을 통한 사육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3. 채란업 선결과제는?

채란업의 당면과제 및 선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계란유통구조 개선이 22.5%로 8개 답변항목중 가장 높게 나왔으며, 계란의 우수성 홍보(14.3%), 자조금 사업(13.9%), 종계 쿼터제(13.9%), 노계처리(10%), 조류인플루엔자 예방(9.6%), 채란업등록제(8.3%), 환우금지(7.8%)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당면현안에 대해 8개 답변항목중 최소 3개씩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사항에 대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사항이 한 개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중에서도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후장기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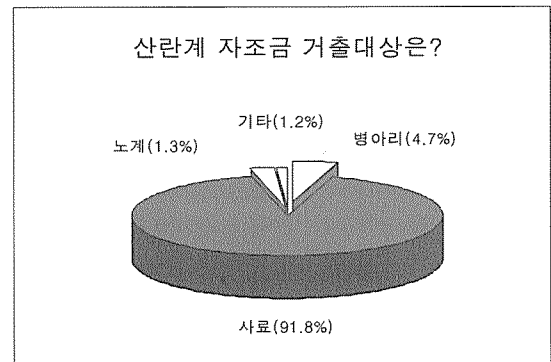


도, DC 등의 병폐 등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태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쉬움을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4. 산란계 자조금 거출 대상은?

산란계 의무자조금 추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거출기관이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에서 사료와 병아리로 좁혀져 거출기관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조금 거출 대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산란계 자조금을 어디에서 거출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1.8%의 응답자들이 사료에서 거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병아리는 4.7%, 노계 1.3%, 기타 1.2%로 각각 나



타났다. 이는 지난해 노계와 병아리에서 거출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채란업은 업의 특성상 형평성 있게 걷을 수 있는 것은 사료밖에 없는데 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계란등급판정에 대한 평가는?

계란등급판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32.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절반이 넘는 51.8%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답변도 15.7%로 나타나 등급판정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많은 것은 등급판정 비율이 아직 미미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계란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데 대한 반발로 풀이해 볼 수 있어 등급판정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계인들과 함께 현실적인 등급판정사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6. 고주령 계군의 환우여부는?

고주령 계군(78주령 이후)의 강제환우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다는 답변이 63%로 나타났고 안한다는 응답은 37%를 보였다. 강제환우를 한다는 농가중에는 2번하는 농가(1.3%)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4월 조사한 환우경향에서 환우를 한다(52.1%)보다 높아졌지만 지난 2004년도 11월의 환우를 한다(68%)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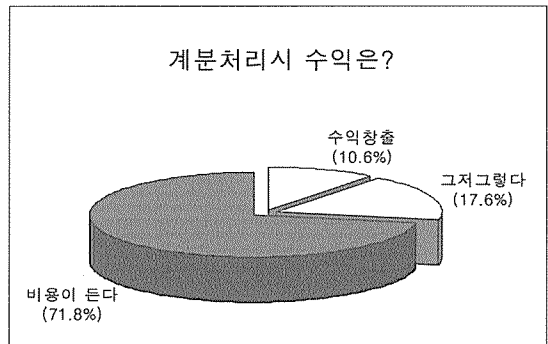
표1. 최근의 환우여부 및 경향

구 분	조사시기		
	2003년 4월	2004년 11월	2005년 10월
환우여부	52%	68%	63%
난개(특란 평균)	76원	126원	105원

반응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강제환우는 난가 시세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계분처리시 수익은?

계분처리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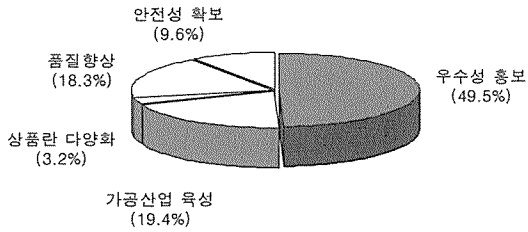


서 금년(7.1)부터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계분의 이용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가에서 계분처리시 수익을 묻는 질문에는 처리비용이 든다는 답변이 71.8%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그저그렇다(17.6%), 수익원으로 충분하다(10.6%)순으로 나타나 계분을 이용한 수익원 창출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계분은 인근 계분처리장이나 비료공장으로 오히려 비용을 들여가면서 처리하는 농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8. 계란소비 활성화 방안은?

계란소비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계란의 우수성 홍보가 거의 절반인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공산업 육성(19.4%), 품질향상(18.3%), 안전성 확보(9.6%), 상품란의 다양화(3.2%) 순으로 나타났다. 계란 우수성 홍보에

계란소비 활성화 방안은?



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조사했을 때의 43% 보다 높게 나온 수치로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계란소비 홍보는 미국과 일본에서처럼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시각부터 바뀌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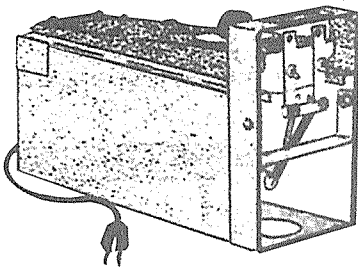
9. 계란 안전성 문제 해결 방안은?

계란의 안전성 문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계란의 우수성 홍보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다음으로 유통구조개선(30%),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농장적용(17.8%), 항생제 사용 억제(11.1%), 보도자제 요청(4.4%) 순으로 나타났다. 계란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의 계속되는 안전한 식품요구에 따라 양계인은 물론 유통, 판매인들까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로 우선적으로 우수성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당면현안으로 꼽힌 유통구조 개선 문제도 안전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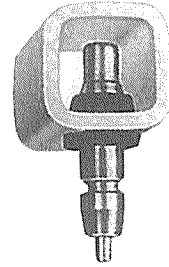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7 - 743 - 6887